

쾌적한 환경의 구현은 우리 세대의 소명입니다

■ 편집부

뜻밖에도 그의 말속엔 경 상도특유의 억양이 없었다. 비음이 독특한 것외엔. 하지만 그는 경상도인이기 충분하다. 그도 그럴것이 서울에서 명지대학을 졸업한 이후 '73년부터 현재까지 이곳 동국제강주식회사 부산제강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말이다.

“환경을 살리자라는 구호에 앞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공장의 종업원 뿐 아니라 인근의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앞으로 이땅에서 살아갈 후손에게 좀더 나은 삶의 터전을 물려주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람으로 알고 생활해 왔습니다.”

이달에 만난 환경인, 金泰炳 환경관리인. 그는 현재 본사의 안전환경관리과 차장으로 안전과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앞서 한 얘기에서도 엿볼수 있었듯이, 金 관리인은 ‘나’ 혹은 ‘개인’이란 말보단 ‘우리’라는 공동개념을 좋아한다. 바로 자신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옛말에 칙천거사

**우리 모두의 노력이
앞으로 이땅에서 살아갈
후손에게 좀더 나은
삶의 터전을 물려주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람으로 알고
생활해 왔습니다.**

(則天去私)라는 말, 즉 하늘을 본받아 사를 없앤다는 얘기처럼 부단히 나=私를 없애려는 것이 그의 인생관이다. 이런 연유로 그는 매사에 ‘수고스러움’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주변의 애기들이다.

“생산에 치중하다보면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이 환경관리이기에, 저희는 환경순찰 및 배출·방지시설의 철저한 관리 는 물론 제반 기술적 측면은 엔

▼지난 2월 부산지방환경청장과의 좌담회에서.





지니어링 전담부서인 정비부와
의 상호협의로 기술을 보완하는
등 환경관리에 충실을 기하고
있지요.”

또한 원활한 환경관리를 위해
각 공장별로 환경반장 13명을
선임해 공장내에서 일어나는 환
경에 대한 제반 문제점들을 점
검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각 부서의 장들과
정기적인 환경회의나 본사 회의
시 이사진들과의 토론회 및 협

의회를 통해 환경과 안전에 관
련된 기술관리를 논의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있다는 설명
이다.

한편 안전관리측면에 있어서
도 재해저감을 위해 Line 안전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해 안전
장제도, Line관리감독자들에
대한 직무별 OJT안전교육 그리
고 환경반장제도구성등 효과적
관리로 괄목할만한 재해감소효
과를 거두었다고.

그는 또한 부산협회의회의 부회
장으로서 협의회 회원들의 기술
교류와 친목도모를 위해서도 활
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의 실상이 염려스
럽다. 특히 최근에 전국을 흔들
었던 대구폐놀오염사건에 대해
서도 소비자를 보호해야할 기업
이 국민의 식수원에 위험물질을
무단 방류한 것은 반사회적, 비
윤리적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
나 수질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행정당국이나 정
립되지 못한 환경오염방지규제
법이 이러한 기업의 행위를 유
발시킨 것이라는 질책 또한 면
치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정부는 오염을 유발
한 원인자의 부담원칙과 환경오
염피해보상법 등 각종 환경정책
의 입안을 진작 서둘러야 했었
다고 봅니다.

물론 기업도 환경윤리의 확립
이 선결되어야 하고요.”

그는 완벽한 환경관리를 추구
하는 야심가(?)이다. 늘 새로
운 지식을 충전하기 위해 책을
가까이한다. 그리고 시간나는
대로 몇몇 가까운 사람들과 산
에 올라 살아가는 얘기하기를
좋아한다. 그는 ‘우리’라는 하
나의 테두리안에서 보다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며, 그것이 곧 우
리는 물론 후손의 삶의 질과도
연결된다는 것, 그리고 그를 위
해 일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소명’임에 대단한 긍지를 갖고
있는 환경인인 것이다. ◀